



## 단위보안 기업에서 통합보안 기업으로 **어울림정보기술**

박은하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대리 eun@kisia.or.kr

보안시장이 태동하던 시기, 많은 보안 업체들이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방화벽, 가상사설망(VPN), 침입탐지시스템(IDS),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팸, 메일보안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선보였고, 이런 각 단위 보안 솔루션들은 각 기업 및 기관들의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IT 장비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기업이 관리 및 운용해야 할 보안 시스템과 인력도 함께 증가해 비용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때문에 최근 대다수 기업과 기관들에서는 보안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다양한 단위 보안제품들을 통합한 솔루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 요구는 통합보안관리(Unified Threat Management) 솔루션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 통합에 대한 요구 등장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UTM이지만, 초기 제품들은 상용 CPU를 사용해 개발된 것으로,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처리할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한계를 지녀 SOHO용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장비와의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의 제품개발이 이뤄지고, 또 성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NPU(Network Process Unit)의 개발과 발전이 이뤄짐에 따라 대형 네트워크 상에서도 적합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능과 성능면에서 많은 개선을 이뤄낸 것이죠.

보안시장 초기 방화벽, IPSec VPN 등을 통해 알려진 어울림정보기술 역시 지난해 방화벽, VPN, IPS, 안티 바이

러스, 안티 스팸 등 다양한 보안기능을 통합한 UTM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보안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웹 방화벽과 NAC(Network Access Control) 기능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UTM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죠. 무엇보다 어울림정보기술의 UTM은 방화벽, VPN, IPS 등 기존 어울림정보기술의 SECUREWORK 시리즈가 UTM의 각 기능을 구현하고 있어 제품의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네트워크 단위 보안제품에서 시작해, UTM으로 발전한 어울림정보기술.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ESM, 패치관리 솔루션, 통합보안 서비스 등 '통합보안'을 제공하는 종합 정보보호 솔루션 전문업체로 우뚝 설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